전직 대통령서 큰스님까지 마지막길 배웅한 '염장이'



대통령의 염장이
유재철 지음
김영사 펴냄/1만4800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염습(襲)이란 시체를 목욕시키고 일체의 의복을 입히는 것을 의미하며, 염장이는 이를 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오늘날에는 흔히 장례지도사라고도 한다. 이를 천직이라 여기며 근 30년간 당대 큰 스님들을 비롯해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 9인중 최규하 노무현 김대중 김영삼 노태우 등 여섯 분의 장례를 도맡아온 사람이 있다. 세간에 '대통령의 염장이'로 알려진 대한민국 전통장례명장 1호 유재철 연화회 대표다. 죽음을 돌봐온 유재철 대표는 전직 대통령들뿐만 아니라 법정 스님, 숭산 스님 등의 큰스님들과 이건희 前 삼성그룹 회장, 이맹희 前 CJ그룹 명예회장 등 재벌총수들, 이매방 무용가, 여운계 배우, 이경해 열사 등 유명 인사의 마지막 길을 배웅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그렇다고 그가 사회 저명인사 위주로 장례를 맡아온 것은 아니다. 일반인은 물론 노숙자, 이주노동자, 독거노인 등 사회적으로 차별받고 소외당한 무연고자의 장례도 치르고 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았을까? 그가 치르는 장례식은 무엇이 다를까?

그 해답이 이번에 유재철 대표가 펴낸 〈대통령의 염장이〉 속에 담겨 있다. 그의 진솔하고 꾸밈없는 이야기들을 차근차근 읽어가다 보면,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진다. 상실의 슬픔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뒤에 가려진 또 다른 삶의 현장, 그곳을 30여 년간 묵묵히 지켜온 어느 염장이의 장엄한 기록들이 이 책에 켠켠히 들어있다.

저자는 책에서 시신을 만지는 불결하고 천한 일을 한다는 사회적 편견으로 불편하고 불쾌한 상황에 놓일 때도 많았다고 고백한다. 하지만 저자는 한 사람의 인생을 잘 마무리해드리고 남겨진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했다는 그 자부심과 뿌듯함으로 결눈질하지 않고 이 길을 묵묵히 걸어왔다. 처음 장례 일을 배우고 나서 2년 동안, 전국 각지를 돌며 지역서 유명하다는 장의사들을 찾아다녔고, 이젠 나름 잘 안다고 자신했을 무렵 자신을 꾸짖은 스님들을 찾아가 겸손히 가르침을 받았다. 그 후 동국대서 '단체장'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나이 50에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서 '국가장'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상·장례를 학문적으로 위상을 높인 저자는 이제 전통이라는 명목하에 진행된 의미 없고 근거 없는 관행을 바로잡으며, 장례의 뜻을 살린 새로운 시도들로 보다 나은 장례문화를 이끌고 있다. 그의 이런 장례에 대한 진정과 배움에 대한 열정이 지금의 그를 만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결실 중 하나가, 꾸밈없이 진솔하게 그의 경험과 생각을 써내려간 이 책이다. 고인을 대하는 진실한 마음, 죽음에 대한 깊은 통찰과 공명하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64편의 에세이가 담긴 이 책은 총 2부로 구성돼 있다. 1부 '수천 가지 죽음의 얼굴'에서는 무연고자부터 대통령까지, 이주노동자부터 재벌총수까지 각계각층의 장례를 이끌면서 겪은 에피소드를 생생히 들려준다. 또한 세간에 알려지지 않던 비하인드 스토리들도 접할 수 있다. 2부 '웰다잉 안내자'에서는 죽음과 장례의 본질에 대해 다룬다. 장례지도사라는 직업과 편견, 우리나라 장례문화, 죽음에 대한 인식 등을 되짚어본다. 지금껏 당연시 해왔고, 또 생각해보지 않았던 죽음과 장례문화가 새롭게 다가올 것이다.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알고 싶지만 알 수 없던 삶 이후의 삶, 그 감동 실화들이 생생히 펼쳐진다.

저자는 책 머리말에서 "근 30년 동안 이 일을 해오면서 수많은 죽음을 만났다. 그중에는 서거하신 전직 대통령 여섯 분이 있어, 나는 '대통령의 염장이'로 알려지게 되었다. 하지만 평범하건 유명인이건 염습에는 차이가 없다. 중요한 건 배경이 아니라 고인이다. 고인을 생전 모습처럼 모시면 그걸로 충분하다. 고인이 누구든 마음을 다해 염을 하는 게 내 일"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장례식장은 삶과 죽음이 뒤섞인 현장

이 책에는 '수천 가지 죽음의 얼굴'과 '웰다잉 안내자'라는 주제 아래 64편의 글이 실려 있다. 그가 30여 년간 수천 명의 마지막 길을 지키며 겪었던 에피소드, 죽음과 삶에 대한 통찰, 우리나라 장례문화에 대한 성찰 등을 기록한 것이다. 장례식장은 고인을 떠나보내는 죽음의 현장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온갖 인간 군상 모습이 드러나는 삶의 현장이기도 하다. 고인의 꽉 움켜쥔 손에서, 일그러진 입술에서, 차마 감지 못한 눈에서, 평안히 잠든 듯한 표정 등에서 임종 직전 그들의 모습과 마음이 드러나기도 한다. 또한 대통령을 추모하기 위해 시청 거리를 가득 메운 인파, 염불을 외는 대신 대중가요를 부르는 스님, 상속 문제로 서로 싸우는 유족, 스승의 죽음을 애도하며 춤추는 제자 들은 다양한 삶의 풍경을 이룬다. 때로는 안타깝고, 때로는 숙연하며, 때로는 쓸쓸하고, 때로는 가슴 뭉클한 인간사가 모두 여기에 있다.

저자는 책 속에서 "볕 좋은 날 아침, 할머니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시더니 화장실로 들어가셔서 스스로 목욕하셨다. 그러고는 분홍 치마저고리를 꺼내 입으셨다. 할머니의 아들이 출근하면서,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라고 인사하자, 소파에 앉아 느린 손짓으로 잘 다녀오라고 하셨다. 며느리가 설거지하면서 보니 할머니는 따뜻한 햇볕을 온몸으로 받으며 소파에 가만히 누워 계셨다. 한 시간 후, 집 안 청소를 마친 며느리가 어머니를 흔들어 깨웠을 땐 이미 세상을 떠나신 뒤였다."고 일화를 소개했다.



저자, 대한민국 전통장례명장 제1호
30년간 묵묵히 지켜온 장엄한 기록
저명 인사들 장례식 에피소드 소개
법정 스님 '무소유' 장례 감명 받아

알려지지 않은 비하인드 스토리 소개

전직 대통령을 비롯한 유명인의 장례식이 진행되면 그 과정 대부분이 언론에 보도되기 마련이다. 하지만 뒤에서 조용히 장례식을 기획하고 식 전반을 이끄는 장례지도사만 알 수 있는 이야기와 포착할 수 있는 장면들이 있다. 이 책은 세간에 알려지지 않았던, 이제는 말할 수 있는 장례식 뒷이야기들도 담고 있다. 이 책을 읽는 묘미중 하나이다. 노무현 前 대통령 국민장에서 노란 추모 리본의 탄생 비화, 김대중 前 대통령 국장 영결식에서 태극기가 함께 매장되던 일화, 김영삼 前 대통령 국가장 때 완장과 의장대의 장갑이 없어진 이유, 노태우 前 대통령의 영결식에서 무궁화 대훈장을 생략하게 된 사연 등을 들을 수 있다. 엄숙하면서도 흥미진진한 그의 이야기를 따라 책장을 넘기다 보면, 생생하면서도 은밀한 역사 현장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저자는 "노 전 대통령의 장례식에는 지금껏 치렀던 어떤 장례보다 조문객이 많았다. 조문 행렬이 길다 보니, 조문객 한 명에게 할당된 시간이 짧을 수밖에 없었다. 잠깐 예를 갖추고 인사드리는 것만으로는 슬프고 허전한 마음을 달래기가 충분치 않아 보였다. '이것 말고 애도를 표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 계속 궁리하던 중, 문득 옛날 상여 행렬에서 휘날리던 만장과 절에 가면 쉽게 볼 수 있는 소원지가 떠올랐다. 거기서 착안한 것이 '노란 리본'이다."고 회고했다.

이렇게 큰 장례를 치른 노련한 저자도 햇병아리 시절이 있었다. 3년 차 였던 1996년 6월 25일, 일붕 스님이 입적했을 때였다. 서울 종로 일붕선원서 7일장으로 치러졌는데, 당시 이런 대규모 장례가 처음인 저자는 첫날부터 허둥됐다. 이런 모습을 지켜본 큰 스님들의 불호령이 떨어진 것은 당연지사. 저자의 뒤에 서서 "옷 고름도 못매느냐?" "왜 그렇게 승복을 입히느냐" 등등 서슬퍼런 야단에 저자의 큰 장례식 데뷔전은 진땀을 흘리며 끝났다.

저자는 "그 당시 큰 스님들에게 꾸중을 듣긴 했지만, 그때 스님들께서 해주신 조언들이 장례지도사 길을 걷는데 큰 힘이 됐다"고 고백한다.

저자가 꼽는 인상 깊었던 다비식은 법정 스님때 였다. 2010년 3월 11일 스님께서는 생전에 관도 꽃상여도 준비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래도 다비장까지 운구하려면 상여가 필요했는데, 마침 누군가 법정 스님이 오대산 암자에서 낮잠잘 때 쓰시던 대나무 평상을 길상사로 옮겨 놓았다. 딱 한사람 누울수 있는 크기인 그 평상에 법정 스님을 뉘었다. 위패에도 이런 저런 문구없이 '비구법정' 네글자만 썼다. 이 모든 것이 법정 스님 다웠다. 말뿐이 아닌 삶으로 보여주는 '무소유'를 지근거리서 목격한 것은 저자 자신뿐 아니라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큰 복이었다고 피력했다.

고인 중심의 장례식을 기획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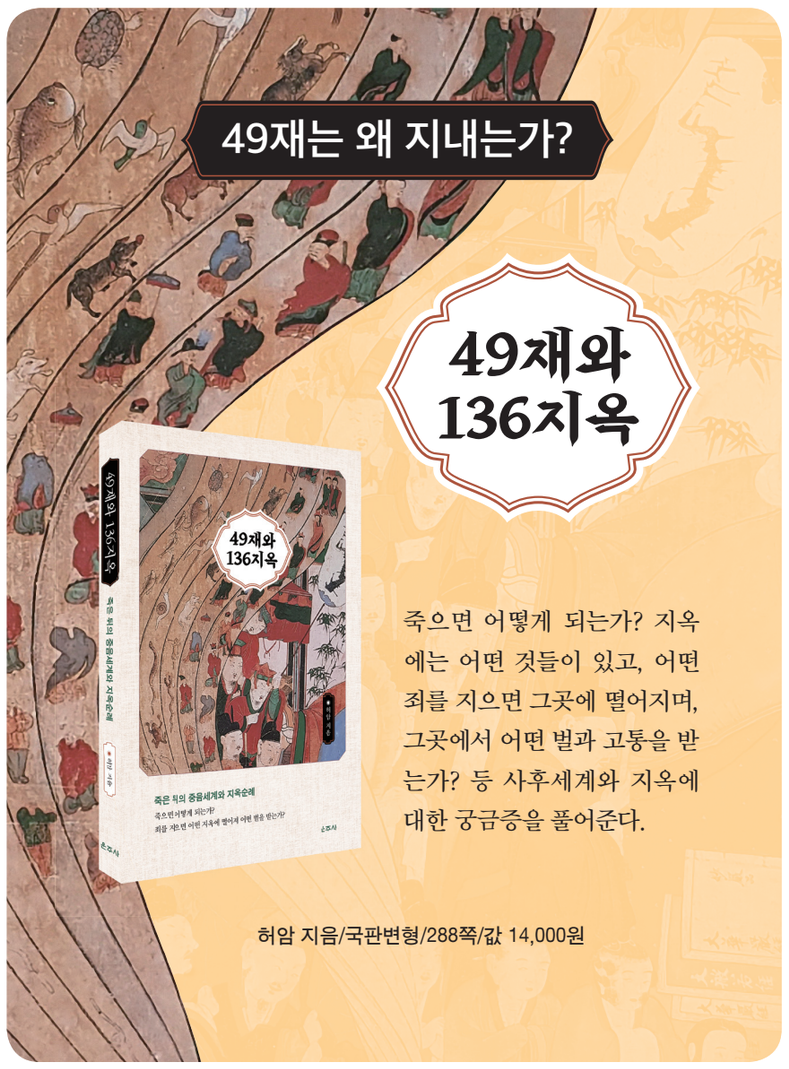
주변에서 누군가 세상을 떠나면, 문자메시지로 부고 소식을 받고, 조문 가서 조위금 내고, 영정 사진 앞에서 절을 한 뒤, 유족에게 위로 말씀 전하고, 육개장 한 그릇 먹고 빈소서 나오는 과정을 밟는 게 일반적이다. '삶의 모습은 사람마다 천차만별인데, 왜 죽음의 모습은 공장에서 찍어내듯 모두 천편일률적일까?' 획일화된 장례문화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저자는 장례에도 고인에게 맞춘 기획과 연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래서 그는 고인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고인에게 어떠한 뜻이 있었는가에 맞춰 장례식을 설계한다. 오직 고인을 중심으로 한 의식은 마지막 길을 떠나는 분에 대한 최고 예우일 뿐만 아니라 유족을 위로하고 장례의 참뜻을 살리는 일이 된다.

저자는 "유명 인사의 장례식뿐 아니라 모든 사람의 장례식에는 기획이 필요하다. 그냥 장례지도사가 하자는 대로 쫓아갈 일이 아니다. 기획이라고 해서 거창하지 않아도 된다. 장례식의 의미를 살리겠다고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특별한 장례식을 치를 수 있다. 고인을 추모하는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거나 시를 낭송해도 좋다. 생전에 찍은 고인의 영상을 조문객에게 보여주는 시간을 갖거나 장례 기간에 애도식을 따로 진행하고 추도사를 읽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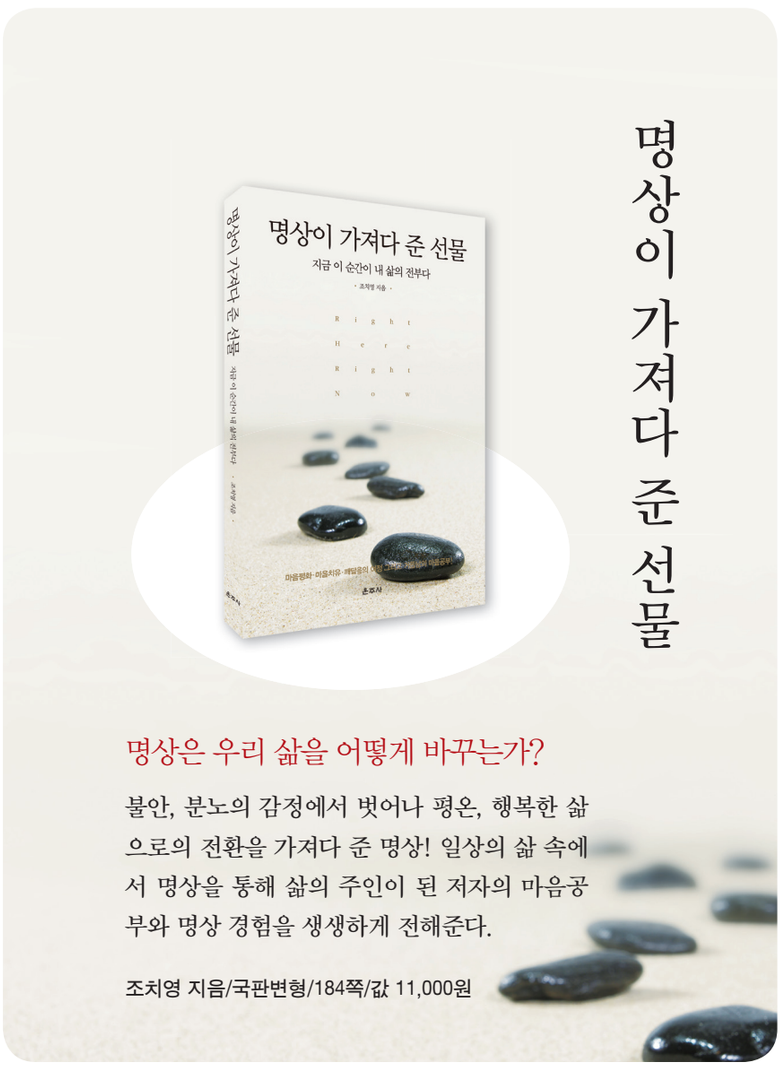
준비하는 죽음을 맞으라, 웰다잉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더 좋은 직장에 입사할 수 있을까?' 등 삶에 대한 고민을 주로 하며 살아간다. 자연스럽게 자신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려볼 기회는 거의 갖지 않는다. 하지만 죽음 현장서 일하는 그에게 죽음은 삶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죽음은 늘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와 같은 인생의 화두를 던지기 때문이다. 우리가 잘 살기 위해 많은 것을 계획하고 계발하듯, 그는 그저 당하는 죽음이 아니라 준비하는 죽음을 맞으라고 권한다. 또한 가망 없는 환자의 목숨줄을 연장하는 연명치료가 정말 그 사람을 위한 길인지, 자신이 주인공이 되는 장례식은 무엇인지, 진정한 웰다잉(Well-dying)이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볼 기회를 제공한다.

▲저자 **유재철**은?
대한민국장례문화원 · 연화회 · 대한민국 전통장례명장 1호이다. 동국대서 '단체장'으로 석사학위를,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서 '국가장'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동국대서 장례 비즈니스 아카데미(F.B.A.: Funeral Business Academy) 과정 외래 강사 및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장례지도사교육원 원장을 역임했다. 노무현 · 김대중 · 김영삼 · 노태우 · 최규하 등의 전직 대통령과 법정 · 숭산 · 법전 · 무진장 · 일붕 등의 큰스님, 이건희 前 삼성그룹 회장, 이맹희 前 CJ그룹 명예회장, 이매방 무용가, 여운계 배우, 이경해 열사 등 대한민국 유명 인사들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